



“우리 동네서도 경기 열리는데 U대회 효과 왜 없나요”

목포·영광·무안·고창·정읍 주민들 하소연

지자체 준비 부족에 방문객 위한 홍보·특산물 판매 미흡

지난 3일 개막한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일부 경기가 열리고 있는 전남·북 각 시·군이 국제적인 메가이벤트를 치르는데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개최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외부 방문객들을 위한 지역 홍보, 특산물 판매 등도 매우 미흡해 실제 시·군에 돌아가는 혜택도 거의 없다는 하소연도 잇따르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내에서는 영광스포티움축구경기장, 목포국제축구센터 등 9개 시·군 21개 경기시설이 광주U대회에 사용되고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관람객을 위해 경기 1시간 전 문화행사를 하고 있지만 관람객 수는 일부 경기를 제외하면 경기장 좌석의 3분의 1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현재 36개 경기가 전남에서 치러졌으며, 내국인 7046명, 외국인 557명 등 7603명이 경기장을 찾아 평균점유율은 24.1%에 불과하다. 축구 2경기가 열린 나주공설운동장이 8.9%로 가장 낮았고, 핸드볼 4경기가 열린 나주전내체육관이 101.5%로 가장 높았다. 전남도가 개보수 공사에 56억원, 사격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18억원 등을 투입한 나주전남종합사격장은 5일 135명(내국인 115명 외국인 20명), 6일 98명(내국인 91명 외국인 7명)이 찾았을 뿐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일에 공무원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무안군의 경우 광주U대회 입장권을 군

비 2400만원으로 3000장, 군 직원이 1500장 등 모두 4500장을 매입했다. 일요일에는 전 직원들이 참석하고 실과별로 각 국가를 배분해 응원을 하며 평일에는 읍면 직원 5명과 이상, 지역 학생들도 동원되고 있다.

지난 4일 첫 농구경기가 무안실내체육관을 찾은 400명 가운데 무안군 직원이 120명이었다.

무안을 낚지골목상인 김모(51)씨는 “무

안에서 광주U대회 농구경기를 하지는 전혀 몰랐다”며 “대회심판이 손님으로 와 무안지역에서 큰 국제행사가 열려도 현수막 하나가 없다고 말해 알았다”고 말했다. 핸드볼과 축구가 열리는 고창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에 사전 통보도 없이 고창군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광주U대회 경기에 참여하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 취소되는 등 국제 이벤트 개최가 무색할 정도로 군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경기장 관람석 곳곳이 비어있는 것은 물론 지역 홍보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각 시·군이 광주월드컵경기장

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경기장에서는 운영 지원에만 충실하면서 국제 메가이벤트 개최에 따른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민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특산물, 관광자원의 홍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는 물론 9개 시·군이 이번 국제적인 이벤트를 계기로 외국인 접대 노하우를 체득하고 관광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소극적인 지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과를 광주와 함께 나누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윤현석기자 chadol@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전통혼례로 백년가약

어머니가 박씨와 신부 발레리 갈라시(26·여·프랑스)씨를 향해 다신을 기원하며 대추를 던지고 있다.

광주U대회 기간 중 공개 전통혼례를 통해 세계인들의 축복 속에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가 탄생했다. 9일 오후 광주유니버시아드파크에서 열린 ‘혼례 재현행사’에서 신랑 박지훈(34)씨의

/*연합뉴스

U대회 이모저모

정의화 의장, 펜싱 출전 헝가리 국회의장 딸 격려



광주U대회에 헝가리 현지 국회의장의 딸이 선수로 출전해 화제다. 여자 사브르 개인 및 단체전 펜싱경기에 참가한 안나 피브리(21·사진) 선수가 그 주인공.

이 소식을 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김성 정채수석비서관을 보내 기념품 등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유럽을 순방중인 정의장은 10일 피브리 헝가리 국회의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육군 제31사단, 해외 파병국가 선수단 초청행사

육군도 광주U대회 손님맞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육군 제31보병사단은 10일 오전 10시 사단 사령부에서 해외 파병국가 선수단 초청행사를 연다. U대회에 참가한 해외 파병국 13개국 선수단 461명이 초청 대상이다. 한국군은 14개국에 1400여명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서는 육군 의장대 시범, 31사단 군악대의 연주 등 공연이 이어진다.

31사단 관계자는 “해외 파병으로 맺은 우정을 돈독히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특전사 제11공수여단 대원들도 레바논 해외파병(동명부대)으로 인연을 맺은 레바논 선수들을 격려·응원하고 있다.

11공수여단은 9일 조선대체육관에서 태권도 예선전을 치른 레바논 선수들을 찾아가 태극기와 레바논 국기를 함께 흔들며 “이브타히즈(힘내라)” 등 레바논의 응원호를 외쳤다. 특전사는 이번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경기장 수색, 폭발물 검출, 상황발생시 초기 대응 등 경호 및 경비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레바논 태권도 대표 선수 웨이반 레오나르도(22)는 “예상치 않은 특전사 대원들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면서 “파병을 통해 맺어진 레바논과 대한민국 국민의 인연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지욱기자 dok2000@

“U대회 성화를 지켜라”

성화봉송팀, 24시간 근무

가스누출 등 사고에 대비

“광주U대회를 밝히는 ‘성화’를 지켜라.”

대회가 중후반으로 접어든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개최를 위해 불꽃주야 근무를 서는 팀 중에는 성화봉송팀이 있다. 지난 3일 개최식에서 광주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 성화대에 성화가 점화된 순간부터 오는 14일 폐회식에서 성화가 꺼질 때까지 잠시도 불꽃에 눈을 땄 수 없는 팀이다.

광주U대회 성화는 해양도시가스, 광주U대회 제조업체 용역사 등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리하고 있다.

24시간 상주 근무하며 이중 삼중으로 성화를 모니터링하고 만일의 사태

에 대비해 가스실 이상 유무를 돌리며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사실 성화가 꺼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광주U대회 성화는 센서가 없는 수동식 장치가 적용돼 강한 바람이 나 비에도 성화가 꺼질 일은 거의 없다.

수동식 시스템이 단순하긴 하지만 오히려 성화가 꺼질 걱정은 훨씬 덜한 것이 조직위의 설명이다. 다만 가스누출 점검, 계량기, 호스 연결 상태, 주변 화재 위험물 정리 상태 등을 예의주시하며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광주U대회 성화는 지난 5월 18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채화한 성화와 지난달 2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에서 채화한 성화를 합해 전국을 돌며 봉송됐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정전에 경기 지연되고 자원봉사자는 벤치서 잠자고 ...

U대회 조직위, 경기 운영미숙 사고 잇따라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의 후진국형 경기운영으로 경기장 곳곳에서 선수단과 관중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기 운영 부실 잇따라=9일 오후 2시께 조선대학교 체육관 전체가 정전되면서 진행 중이던 태권도 경기가 5분간 지연되는 등 경기장 곳곳에서 운영 미숙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통역·의전 등을 담당하는 9000여명의 자원봉사자 중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비매너적인 모습을 보여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선수촌·경기장, 도심 천막 안내소 등 주요 장소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이 버젓이 명찰까지 차고서 의자와 벤치에서 잠을 자는가 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 등을 해 보는 등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앞서 8일 오전에는 조선대에서 애초 낮 12시까지로 예고된 태권도 경기가 오전 11시에 끝나는 바람에 4~6세 어린집 원생들이 발길을 되돌리기도 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보여주기 위해 경기시간 확인 후 서둘러서 오전 11시에 도착했는데, 대회

관계자로부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는 면박까지 받았다”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온 아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선수·관중 배려도 미흡=거짓 해명까지=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경기를 즐기려고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매표·입장·경기 안내 과정에서의 조직위의 부실 대응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회 7일째인 9일 오전 11시께 주경기장인 서구 월드컵경기장 매표소 앞에서는 20여명의 시민들이 조직위 직원들을 향해 항의를 쏟아냈다. 경기 종목과 시간(순서) 등의 안내 게시판이 없어 조직위 직원 2명이

일일이 안내를 하고 입장권을 판매하느라 기다리며 지친 시민들이 폭발한 것이다. 조직위는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30여분만에 A4용지에 경기를 안내하는 표를 붙였다.

전날 오전에는 주경기장 선수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 2곳이 1시간여 잠기는 바람에 경기를 앞둔 선수들은 화장실을 찾느라 이리뛰고 저리뛰는 등 황당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당시 광경을 목격한 자원봉사자와 환경미화원, 파견 나온 소방관, 경찰관, 선수단은 “1시간 정도 화장실이 잠겨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에서 파견 나온 해당 시설 담당공무원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언론 등에 거짓말로 대응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특별취재단=백희준·박기용기자 bhj@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U대회 성공개최”

2015 GWANGJU FANTASY4 MUSIC FESTIVAL

2015. 7.24 - 8.9 @상무조각공원 옆 1만평 부지

광주 최초의 야외 워터파크 수영장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됩니다!

에어돔 3D 판타지 쇼! | 워터파크! | 클럽 풀파티! | 한여름밤 치맥 파티! | DJ 뮤직 페스티벌 (7.24-25)

주최 光州日報 | 주관 Intercommax | 공연기획 총괄 REDEC | 행사운영·지원 총괄 CM 씨엔피알(주) | 전화예매 1566-6373 | 예매 인터파크 DISCO | www.fantasy4.co.kr